



2021년 11월 14일(제1061호) 연중 제33주일(시계 기반의 이의 날)

군종주보

발행 : 군종교구 홍보국 | 전화 : 02)749-1921, 02)900-7756 | FAX : 02)790-5768 | http://www.gunjong.or.kr | email : hongbo@gunjong.or.kr

말씀

“니 마음 입에는 무엇이 있나요?”

군대 내 용사들과 사적인 대화를 나누다 보면 생각보다 많은 친구들이 군 복무를 하면서 주식이나 코인 투자에 빠져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최근에 있던 일은 아니지만 한 번은 주식과 코인에 관하여 서로 농담을 나누고 있는 용사들이 있길래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주식에 대해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 용사 중 한 명은 나름대로 자신이 가진 노하우를 알려주면서 주식 지식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사실 저는 주식도 코인 투자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 잘 알아듣지는 못하였지만, 어찌 되었든 언제 사고, 파는지에 대한 나름의 기준이 그 용사에게 있다는 것 정도는 알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복음 내용 중에는 ‘무화과나무 교훈’ 이야기 가 담겨 있습니다. 무화과나무를 보며 계절을 알 수 있는 것처럼 사람의 아들이 오는 날에 대한 표징들을 바라보면서 재림의 때를 깨달을 수 있도록 가르치십니다. 하느님 께선 우리에게 여러 표징들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시고 생각할 수 있는 힘을 주셨으니 모두 가능한 일일 겁니다.

아직 오지 않은 재림의 표징들만 우리가 깨달을 수 있을까요. 세상 안에서 볼 수 있는 많은 것들을 보며 하느님께서 추구하시고자 하는 바들도 우린 볼 수 있고 복음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세계 가난한 이의 날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제정하신 오늘의 전례 시기는 가난한 이들을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라 가난을 묵상하고, 기도와 행동으로 가난한 이를 만나 사랑을 실천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이들은 분명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난한 이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시대와 상관없이 늘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오늘날뿐 아니라 예수님 시대 때도 정말 많은 가난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굳이 시대라는 거창한 말을 쓰지 않아도 예수님과 같은 공간 안에 있는 사람들도 알았을 것입니다. 평범한 민중들도, 바리사이나 율법학자와 같은 권력층들도 말이죠. 하지만 그들 모두가 가난한 사람들을 볼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곁에도, 민중들 곁에도, 제자들 곁에도, 바리사이들

곁에도 가난한 이들은 있었지만, 가난한 사람들을 똑같이 보고 느끼고 생각했던 것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내가 많이 가진 사람이라고 해서, 내가 가난하다고 해서, 내가 사회 권력층이라고 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이런 조건과 상관없이 우리 주변에 분명 존재하고 있는 가난한 이들을 똑같이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모두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에 있어 자유로울 수 없는 우리 모두는 어떻게 해야 예수님과 같은 눈을 지니고 가난한 이들을 볼 수 있을까요. 많은 방법 중 하나는 나의 관심사를 가난한 사람들에게 많이 두도록 노력해 보자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관심 있는 것에 마음을 두는 법이죠. 예를 들어 초반부에 말씀드린 주식과 코인을 알려주었던 용사는 돈벌이에 많은 관심을 두고 있었을 겁니다. 그에게 있어 주식 그래프나 코인의 오르내림은 선명하게 보이는 관심사일 것입니다. 흔히들 농담 삼아 당구에 빠지면 모든 것이 쿠션으로 보인다는 것과 비슷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 때도 관심의 문제는 똑같이 적용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사 안에 소외되고 가난한 이들이 담겨 있었기에 예수님 눈에는 그들이 보였던 것이고, 그 시대의 권력층에겐 가난한 이들이 관심사에 없었던 만큼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람에게 눈이 있고 생각할 수 있는 힘이 있다면, 그렇다고 모두가 복음적으로 볼 수 있거나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내 마음 안에 들여차 있는 것들이 무엇으로 채워져 있고 무엇에 기울어져 있느냐를 고민해 보아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의 마음 안에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이 자리하고 있습니까?

박재우(미르홀리노) 신부
장성(6시터) 성당 주임



제 1 특 시
회 답 송
제 2 특 시
복음 권호송
복 음
영 성 제 송

다니 12,1-3
◎ 주님, 저를 지켜 주소서. 당신께 피신하나이다.
히브 10,11-14.18
◎ 알렐루야.
○ 너희는 사람의 아들 앞에 설 수 있도록 늘 깨어 기도하여라. ◎
마르 13,24-32
저는 하느님 곁에 있어 행복하옵니다. 주 하느님을 피신처로 삼으리이다.

성 김대건 인드레이 신부의 시한

열한 번째 시한

천주교 신자가 되려고 하는 외교인들이 많이 있으나, 신자들은 박해가 무서워서 자진하여 그들에게 종교를 전하려는 엄두를 감히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백성이 그리스도의 종교를 찬양하고, 그 종교가 참된 종교임을 고백하며, 박해가 없었더라면 그들도 신자가 되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로지 박해가 무서워서 감히 귀의하지 못하고 있을 따름입니다. 포졸들도 서로 다음과 같이 수군거립니다.

“만일 박해가 없다면 누구라도 송아지 새끼가 아닌 이상 천주교 신자가 되기를 마다할 사람은 없었을 거야.”

“천주교는 참으로 훌륭한 종교이기는 한데, 우리가 만일 신자가 되면 아무것도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행동해서는 안된다는군. 온갖 모욕을 인내로 참아내고 언제나 어디서나 겸손하여야 한단네. 자기 자신과 세상 사물을 경시하며 모욕을 받더라도 보복을 해서는 안된단네.”

“그러니 비참할 것이다. 세속적인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이 이 세상에서 산다는 것이 아무 소용이 없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외교인들은 천주교 신자들이 정직하다고 알고 있고 신자들의 비참을 동정합니다. 박해 때에는 신자들에게 여러 가지로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외교인들은 어떤 좋은 것이나 놀라운 것을 발견하면 ‘천주교인 소행’이라고 합니다. 외교인들끼리도 어떤 것을 올바르게 행하면 “자네도 천주교 신자인가. 그래서 바르게 행동하려는 건가.”라고들 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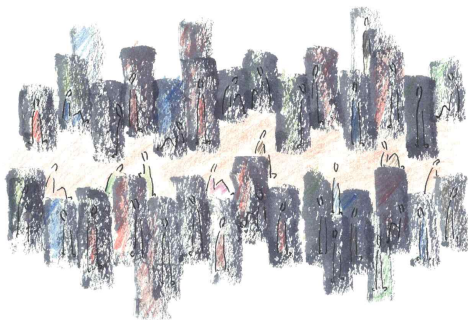
중국인인 주문모(周文謨, 야고보) 신부님을 죽인 왕후를 제외하고는, 조선에서는 종교를 적극적으로 박해한 임금님이 없었습니다. 모든 박해는 벽파(僻派)의 대신들로부터 시작되었고, 왕들은 흔히 마음이 내키지는 않았지만 벽파의 뜻을 감히 반대하지 못하고 그들이 하자는 대로 허락하였을 따름이었습니다. 1838년에 대왕 대비가 바로 그러하였고, 그 다음 몇 해 동안의 마지막 박해 때에도 그러하였습니다. 대왕 대비는 대신들의 뜻을 감히 반대하지 못하였고, 마음속으로는 반대하면서도 대신들이 신자들을 가혹하게 박해하고 신부님들을 죽이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다음 주에 계속>

『성 김대건 인드레이 신부의 시한』 발췌, 성 김대건 신부 순교 150주년 기념 전기 자료집 제1집, 한국교회사연구소, 1996

복 음 묵 상

- 배영길(베드로) 신부 / 예수회

사는 게 지옥인 세상



| | |
|------------|------------|
| 사는 게 지옥인 | 이 세상을 |
| 세상에 우리는 | 이리 만들었을까요? |
| 오늘도 숨 쉬며 | 당신? |
| 이렇게 살고 있다. | 나? |
| 누가, | 우리..... |

상화이야기

빛의 교회



독학으로 건축을 배운 안도 다다오는 그만의 독특한 방식으로 건축을 추구하여, 소위 노출 콘크리트 건축의 새 지평을 열었다고 평가받는다.

그의 작품 중 가장 유명한 작품 중 하나인 빛의 교회(오사카)는 비록 작은 크기이나 공간을 아우르면서, 또 압도하기도 하는 빛이 들어오는 독특한 방식으로, 그 공간에 위치한 이들에게 특별한 감정을 불러일으킨다. 교회를 건축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작업이다. 성과 속에 경계를 부여하고, 그 안에 위치한 이들이 성스러운 경험과 목상을 가능케 한다는 것은 건축가에게 큰 도전이 아닐 수 없겠다. 우리는 어떻게 이 경계를 우리만의 방식으로 지을 수 있을까?



오늘의 보편 지향 기도를 매일미사에서 발췌해본다.

"진리의 빛이신 주님, 주님의 백성인 교회를 굶어살피시어, 빛과 어둠이 공존하는 세상 속에서 주님의 진리를 밝히고, 구원의 희망을 전하며, 참사랑을 실천하게 하소서." **김은혜(앨리스빛)**

교 구 소 식

군중후원회 회원을 위한 미사 - 연중 제33주일: 히상비오로 천재관 신부

◆ 교구장 동정

- 대치2동 성당 미사 및 특강
 때: 11월 14일(주일) 11:00
- 칠성대 / 지성대 / 용성대 / 예성대 / 공군본부 성당 신부 방문
 때: 11월 16일(화)
- 데레사회 미사
 때·곳: 11월 17일(수) 12:00, 교구청 1층 소성당
- 명성대 / 천성대 / 은성대 / 성무대 성당 신부 방문
 때: 11월 18일(목)
- 군중후원회 지도신부 간담회
 때·곳: 11월 19일(금) 10:30, 군중교구청

"슬기로운 중" - "어떻게 하는 중이 진실하고 슬기로운 중이겠느냐?" (마태 24,45)